

元老 水工學者 靜岩 元泰常博士의 삶

門下生. 延世大學校 教授 李元煥

< 차례 >

머릿말

1. 8.15解放 前後의 韓國水工學과 元泰常
2. 教育者로 定着키로한 元泰常教授
3. 6.25事變 前後의 元泰常教授 學究熱
4. 筆者가 보고 겪은 元泰常博士의 삶
5. 停年을 모르고 살다가신 恩師님

맺음말

머릿말

제 35회 수공학 연구 발표회에서 先覺 水工學者 故 元泰常박사에 對한 回顧 談을 적어서 發表해 달라는 高在雄會長의 부탁을 받고 快히 承諾하였다.

가닭인즉 元老 水工學者들의 지나온 발자취를 後輩 水工學徒들에게 傳할 수 있는 機會가 不肖 本人에게 榮光스럽게 돌아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걱정거리가 생기었다. 막상 原稿을 쓰려고 하니 雅號가 생각나지를 얹잖는가. 遺家族이 대부분 美國에 가있고 國內에는 長女 한분이 사시는데 電話番號도 모르겠고 이런 일이 생길줄 미리 알었으면 恩師任 履歷書 一通정도 는 간직하고 있었어야 했던 것인데 하고 후회 막급하다. 弟子가 똑똑하지 못 하니 부끄럽기 그지없다.

몇日後에야 長女되시는 분에게서 恩師任의 雅號가 “靜岩”임을 알게되어 回甲 宴席上(서울大 醫大內의 教授會館)의 懸垂幕모습이 머리를 스치었다. 1963年 5月の 일이니 꼭 30年前의 파노라마이다.

1. 8.15解放前後의 韓國水工學과 元泰常

1903年 5月 22日 京畿道 廣洲에서 出生하여 어린時節을 故郷에서 보내다가 父親을 따라 咸鏡北道 會寧에 가서 보통학교(국민학교 과정)를 卒業하고 14歲 때에 徒歩로 單身上京하여(보짐을 등에 지고) 京城第一高等普通學校(現 京畿中學校 前身)에 應試하여 合格하였다는 소년 元태상.

其時節이 1917年쯤 되겠으니 政治的으로는 韓日合邦以來 滿7年이 經過되어 이른바 朝鮮總督指揮下에 韓半島 全域에 걸친 植民政治 基盤이 構築되어 가던 때이 었다.

서울이나 釜山地方等地에서는 이미 韓日合邦 數年前부터 氣象觀測 業務가 開始되었으며 漢江水系를 비롯한 몇個 河川地點에서의 河川調査事業이 한참 推進되어 가고 있던 때이기도 하다.

소년 元泰常의 父親께서는 日本語에 能通하여 咸鏡線 鐵道工事現場의 日人 通譯을 擔當하게 되므로서 회령(會寧)지방에 가서 勤務하게 되었고 父親膝下에서 普通學校 敎育을 받았었다. 회령 보통학교동창생으로는 신태악氏와 설경동氏를 들고 있다.

京城第一高等普通學校를 卒業한 中學生 元泰常은 京城高等工業學校 土木科에 應試하여 合格하였으니 韓國人으로서는 같은科에 故 金 海琳(前 大韓土木學會會長, 前 都和綜合設計公社 社長)先生님과 더불어 오직 두분 뿐이 었다.

京城高工 土木科를 志願하게된 動機가 있었을 터인데 本人으로서는 記憶을 더듬어 보아도 分明치가 못하다. 아마도 父親의 影響力과 當時의 韓人들에 對한 政治的인 進路制限條件 등에서 感化되었던 것이 아닐런지 싶다.

京城高工을 1927年 3月 1日자로 卒業하신 元泰常先生님은 暫時 中等學校 敎鞭을 잡기도 하였고 梨花女子專門學校의 講師로서 出講도 하셨다. 그러다가 27歲 되시던 1929年에 當時 梨花女專 音樂科를 卒業하신 정분남女史를 新婦로 맞이하여 結婚하시고 膝下에 四男二女의 子女를 두시게 되었다.

그러다가 1928年 부터 約 3年間 京城府水道課에 勤務하시다가 뜻하신 바 있어 1931年 부터 朝鮮總督府 內務部 土木課의 職員(技手)으로 就職하여 1942年 6月까지 勤務하시고 그후 滿洲帝國 總務處 高等責任官 3등으로 交通部 治水調査課에서 勤務하였으며 주로 擔當하였던 業務로서는 水文觀測 또는 實測된 氣象資料들에 對한 整理와 解析課業을 遂行하였으며 實地 現場業務 보다는 事務室內에서의 勤務를 하다가 1945年 8.15解放을 맞이하게 되었다. 8.15解放以前까지의 日人들에 依한 韓國內에서의 水工事業으로서는 주로 河川調査事業과 河川改修事業이 推進되었으며 1930年代 末경 부터는 水力發電事業도 開發되어 水豊담 建設事業과 같은 大型水力發電事業도 크게 推進되었다.

河川調査事業으로서는 1910年 以後 1925年度까지 約 16年間に 걸쳐서 38個 直轄河川 水系中 14個 河川水系에 對한 河川改修計劃을 樹立하여 1927年에 朝鮮河川調査書와 附圖 二篇, 附錄(雨量篇)等を 發表하였다.

朝鮮河川 調査書의 內容에 依하면 適用하였던 水理公式 및 水文學에 關한 經驗公式으로서 平均流速公式으로서는 manning의 式이 引用되었으며 低水路部의 粗度係數(n_1)와 高水敷地의 粗度係數(n_2)의 값을 一律적으로 다음과 같이 採擇하고 있다.

$$\begin{aligned}n_1 &= 0.03 \\n_2 &= 0.06\end{aligned}$$

그리고 洪水量公式로서는 가지야마式(日人, 梶山淺次郎의 提案式)이 專用되고 있다.

그밖에 都市 上水道事業이라든지 灌溉·排水分野의 水理·干拓事業等도 施行되었으나 여기서는 紹介를 省略하겠다.

結論적으로 元泰常先生님은 家庭에서는 父親 膝下에서의 家庭教育과 時代的으로는 日人들의 植民地政策이 強要되고 있던 時點에서 都市와 社會基盤構築

事業이 土木事業이었음에 感化되어 京城高工 土木科에 進學하게 되었고 實務보다는 理論을 통한 學究的인 熱情을 보다 強하게 希求하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2. 教育者로 定着키로한 元泰常 教授

1945年 8.15解放을 期하여 36年間 韓半島와 韓民族을 強占하여 植民地政策을 즐겁게 行事하였던 日本帝國主義者들은 聯合軍에 依한 武裝解除를 當하고 소 리없이 玄海灘을 건너가 버렸다. 8.15解放을 不過 一週日 남겨놓고 滿洲地方에 駐屯하고있던 日本의 關東軍에게 엮치종게 參戰하게된 蘇聯軍과 南方에서 韓半島에 上陸한 美軍과의 사이에는 北緯 38度線을 境界로 하여 日本軍의 武裝解除業務를 分擔하고 同時에 各其 占領地區에 對한 治安維持라는 名目으로 一時 信託統治(民主主義政權을 樹立할 能力이 不足하다고 判斷함)를 軍部가 담당하여 여러차례의 美 蘇共同委員會가 開催되었다.

其後 南韓에서는 1948年 8月 15日을 期하여 大韓民國 單獨政府가 建立되었다.

8.15解放以後 政府樹立時까지 3個年間の 左右翼陣營의 政治紛爭은 政黨人들 사이에서만 의 일이 아니였고 政界는 勿論이고 官界, 學界 심지어는 一般 國民들 사이에서까지 左翼이 옳다, 右翼이 옳다하는 式의 是非가 자고나서 눈만뜨면 도처에서 벌어지고 마치 韓國天地는 모든곳이 政治, 思想의 討論場과 테 러事件의 連發現象으로 뒤덮혀 버렸었다.

그간의 學生運動 가운데 記憶에 남는 것은 國大案(國立서울大學校 設立案) 反對學生運動이다.

結局은 1948年 8月 15日字 大韓民國政府樹立과 同時에 左翼團體들은 그 勢力이 弱化되어 地下로 들어가고 國立서울大學校가 設立되게 되었다.

8.15 解放前後까지 約 18年間을 日帝治下에서 土木技術職 公務員生活을 이

어오던 元泰常先生님은 1945年 10月부터 미군정청 發令에 의하여 경성공업전문학교 교수로 임명되었고 1年後인 1946年 10月 22日附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로 총장발령을 받게 되었다.

元泰常 教授任의 自筆 履歷書에 의하면 8.15 解放以後 1948年 政府樹立時까지는 미군정청 책임자에 의하여 경성공업전문학교 교수 및 겸직 발령으로 토목과장, 후생부 시설과장, 의생국장 등의 官職도 담당하였거니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로 發令된 以後부터는 後進教育에 專念하고자 教育者로 定着하였던 것이다.

3. 6.25事變 以後의 元泰常教授의 學究熱

本人이 元泰常教授任을 처음 뵈옵게 된 것은 1949年 6月の 入學試驗 面接場所에서의 일이 었다.

미리 書面으로 準備하여 둔 文章(國文, 漢文 및 英文)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고 제1번 質問이 있었고 南北統一에 對한 貴下의 생각은? 이것이 제2번 質問이고 學費出處가 제3번 質問이었다.

體驅가 크시고, 威信이 돋보였으며 말씀이 엄숙하였음이 지금도 當時의 場面을 充分히 연상할 수 있게 하여준다.

學部 一學年 二學期 첫 週의 都市計劃 講義時間의 일이 생각난다. 元來 4學年生의 教科日인데 4學點을 더 申請할 수 있다고 하기에 2學點 配定인 都市計劃을 受講申請하였던 것이다. 講義室에 들어가보니 外國人講師와 元泰常教授 두분이 강단의 의자에 앉아계셨다. 講義가 始作되자 外國人講師를 元泰常教授가 간단히 紹介하고, 外國人講師의 講義가 유창한 英語로 進行되었다.

學生 한사람, 한사람의 個人紹介(성명, 出身學校 및 故鄉 等)를 英語로 發表하라고 하기에 大體的으로 順調로히 進行되었고 講義內容이 國內 各 都市의 街路網形狀을 對象으로 質疑應答式으로 進展되어 갔다. 途中에 講師와 學生사

이의 理解가 잘 되지 못하게 되자 元泰常教授任이 英語로 자세한 說明을 보충해 주므로써 理解를 促進시키기도 하였다.

1950年 4月인가 5월에 元泰常教授任의 博士學位(서울大, 理學博士) 論文發表會가 있었다. 論文題目은 “背水曲線의 合理的 解法”에 關한 것이 었다.

本人은 겨우 學部 一學年을 마친 터이라 內容을 전혀 모르는 일이지만 博士學位論文發表라고 하니 그야말로 대단한 學問의 領域을 深奧하게 究明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1~2個月 後에 6·25事變으로 이어졌으니 博士學位授與式은 港都 釜山의 九德山 기슭의 서울大 臨時假校舍 운동장에서 1952年 4월에 舉行되었다.

1950年 6月 25日, 뜻밖의 南北間의 戰爭勃發로 單身南下하여 釜山으로 避難하였으며 美 工兵隊 文官으로 side job을 가지면서도 理學博士學位論文을 完結하였음을 볼 때 元泰常教授任의 學究熱은 남 다른바가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4. 筆者가 보고 겪은 元泰常博士의 삶

6·25事變으로 因하여 筆者가 元泰常博士의 講義를 처음 申請하여 듣게된 것은 1952年 4月(當時 學部 四學年)부터의 일이었다.

釜山 九德山 기슭의 서울大 工大 假校舍(木製 임시건물內에 모래를 깔고 흑판과 긴의자가 설치되어 있음)에서 print된 教材(河川工學, 衛生工學 및 發電水力 等)를 元教授任이 차분히 읽으시고 學生들은 들으며 (또는 졸면서) 時間은 흘러갔다.

一線에서는 晝夜로 쉬지 않고 砲火가 번지면서, 同年輩들이 死線을 헤매고 있는가 하면 港都 釜山에는 100萬名이 넘는 避難民들이 集結하여 每日每日의 戰況報導에 全神經을 곤두세워 가며 하루하루의 먹을 것을(자는 것은 뒷전) 해결하려고 東奔西走하며 살아갔다.

어쩌다 아는 사람(또는 친구)을 만나게 되면 첫 人事가 “살아 있었구나”하고 부등켜 안고 눈물이 글성거리던 그때 그 時節. 지금은 한낱 머리속에서만 연상되는 40餘年前의 파노라마인데... (더이상 생각하고 싶지않아서 이만 줄임.)

平常時 같으면 옛날의 工事現場에서의 假設食堂같이 꾸며진 모래밭위의 판대기 긴의자, 이것이 食堂이 아니고 前面에는 칠판(흑판)이 걸려 있고 이렇다할 斯界의 權威者를 自處할 만한 教授님과 講師님들의 熱講이 直接 傳播되어던 훗날의 土木技術者와 水工學徒들의 養成道場이었음을 想起하게 된다.

敎材(print)가 製本된 單一冊子가 아니고 講義時間에 그때 그때 部分的으로 出席學生들에게만 配布하여주신 元泰常教授任의 信念(웅고집이라고나 할까?)은 一絲不亂하였다.

登錄 當時에 敎材費用을 안낸 學生은 當然히 敎材를 받을 수 없겠으나 納付한 學生들도 配布하여줄때 假出席(實地는 缺席)되었으나 敎材를 못 받았으면 그 후에는 敎材받을 생각은 敢히 할수도 없었고 달래야 그때 받았을 것이니 주지 않았다.

그 當時는 卒業에 必要한 履修學點이 180學點이었으며 登錄回數는 오늘날과 같이 年 2回登錄으로 8회를 하게되어 있었으나 戰時體制下의 臨時措置로 7個 學期만으로도 學點만 따고 軍(幹部候補生)에 志願만 한다면 卒業시키었다. 뿐만 아니라 戰時聯合大學 등에서 專攻分野와 關係없는 學點을 取得한 學生들은 本大學(原出身大學)에 와서 卒業學年(2個 學期)은 반드시 履修토록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學籍簿의 交通整理(專攻分野 以外の 科目과 學點은 除外함)를 畢해야 하므로 비록 8回 登錄을 畢하였다 하여도 學點未達로 1學期를 더 履修시키기도 하였다. 元泰常 博士님의 學籍簿 交通整理는 아주 嚴格하여 必須科目(元泰常 教授님 담당 科目等)을 履修하지 못하고서는 卒業이 안되었다.

試驗時間에는 print된 試驗問題와 答案紙가 別途로 되어 있어서 試驗시작되고 20 ~ 30分이 經過되면 試驗問題紙는 全部 回收하여 가져가신다. 뒤에 알

게 된 일이지만 다음 學年 學生들의 試驗때에 再活用하기 위함이었다. 어쩐지 試驗問題紙가 누렇게 바래서 오래된 종이이었으며 筆者가 大學院을 卒業하고 京畿工高(現서울産業大學의 前身)에 教師로 勤務하고 있을 當時 數次에 걸쳐서 試驗問題를 새 用紙에 print하여 드린 것을 記憶하며, 試驗問題가 매번 똑 같았음을 알게 되었다. 아마도 그 問題가 元泰常 博士님으로서는 가장 重要的 問題라고 생각하셨을 것이고, 過去 卒業生들이 이와같은 問題들을 풀고 나갔으니 先·後輩間의 亦是 同窓生이 되려면 始終一貫 一絲不亂의 信條下에 同一한 試驗問題로 判定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다.

本人은 1949年 9월에 서울工大 土木工學科에 入學하였고, 1954年 4월부터 1957年 3월까지 大學院 碩士課程을 마치고 혼자 卒業한 後 1960年 9월까지 工大助教로 勤務하면서 京畿工高 教師로 兼職한 바 있다.

大學院 在學中에 元泰常 博士님의 宅과 不過 400 ~ 500m 떨어진 집안 형님宅에서 通學하였다. 거의 每日 아침 저녁으로 電話가 걸려온다. 물어 볼것도 없이 元博士님으로 부터 宅으로 들리라는 電話이다. 거의 1年半동안의 일이다. 用件은 時間講師와의 連絡關係, 技術官署에의 심부름, 學位論文(東京大學에 보낼 工博學位申請論文)圖表 作成 助力, 國際 學術會議 投稿 論文 助力 等等이다. 別로 귀찮게 생각하지도 않았거니와 大學院 學生은 元來 指導教授의 助力을 하면서 배우는것이 本分으로 알고 살아왔다.

事實은 몇번 서운한것도 있었고(元博士 講義 時間에 15分 以上 기다리다 學生歸家로 本人 책망들었음)억울한일(元博士와 故 黃程哲 局長과의 討議論文에 對한 評價依賴를 本人에게 要請, 評價文 不提出로 E 學點 授與)도 있었으나 元泰常 博士의 學究熱은 數없이 여러번 夜間에 宅을 訪問하면서 느낀것은 밤 11時가 지나고 子正이 되도록 冊床위에 늘 原稿가 作成中에 있고 큰 擴大鏡을 利用하여 原稿를 쓰시는 그 모습은 젊어서 두눈의 視力이 1.5以上の 本人으로서는 限量없이 尊敬스럽게만 생각되는 스승님의 모습이였다.

書齋의 電話는 使用禁止를 뜻하는 작은 자물통이 채워져있고 벽장(좋아하시

는 과일등 보관)門도 매일 채워져있는 것을 보고 가족들이 함부로 器物에 손을 대는것을 싫어하는 性格임을 알수가 있었다.

學校에 出講하실때는 언제나 正裝하시고 모자를 쓰신다. 그리고 講義原稿와 더불어 사과 한箇는 책 보자기안에 반드시 넣고 점심 食事後에는 後食으로 사과 1箇를 드시고 반드시 치아를 닦으신다.

食事は 무엇이든 아주 잘 잡수시고 밥알 하나도 남기는 일이 없이 깨끗하게 그릇을 비우신다. 담배는 안 피우시고 술은 맥주 한 컵 정도는 드신다.

當時만 해도 大學教授들의 收入이 얼마 안되어서 인지 自家用 乘用車를 가지고 있는 분이 別로 안계셨으며 元泰常 博士님도 車가 없어서 出退勤에 어려움을 크게 겪고 지내셨다.

元泰常 博士님은 工大教授로 在職中이나 停年退任後에나 繼續 國際 學術會議에 參加를 많이하셨으며 本人이 마지막으로 國際會議 席上에서 敝은지는 1975年 11月 初의 第19次 國際 水文學 Symposium이 日本 東京都 Prince Hotel 에서 開催되었을 때의 일이었다.

本人이 論文을 發表할때 座長(chair man)을 맡아 주셨으며 그 다음해 正初에 暫時 서울 따님宅에 들리셨을때 찾아 敝었는데 몇달後인 1976年 5月 18日字로 美國에서 他界하셨다는 悲報를 19日 저녁에 接하고 同年 5月 22日 장충단 廣場에서 遺族들과 많은 弟子들 그리고 그분을 이끼셨던 數 많은 弔客들이 모인 자리에서 마지막 告別人事를 나누는 發鞠式이 舉行되었으니 滿 73年을 사시고 龍仁 公園墓地에 安葬되셨다.

5. 停年을 모르고 살다가신 恩師님

1968年 6月 下旬에 서울工大 安守漢 教授님 主導下에 元泰常 博士님의 終講式 準備가 조심스럽고 조용하게 推進되고 있었다. 大體的인 終講式 舉行節次와 場所, 時日, 그리고 參席 對象範圍等等으로 協議는 一段落 되었으며 누가 元泰常 博士님에게 通告할 것인가만이 남아 있다가 安守漢 教授님의 要請으로

本人이 通告 任務를 맡게되었다.

1968年 6月 末日을 期하여 4學年 學生들이 放學으로 헤어지기전에 終講式을 갖는것이 좋겠다고 合議 되었다는 點을 電話로 元泰常 博士님 宅으로 通告하였다.

그 電話를 받는 瞬間 元泰常 博士님은 대단히 怒하시면서 누가 終講式을 한다고 했는가 하시면서 걱정을 하시기에 先生님께서 終講式을 하시지 않으시겠다면 取消하겠습니다 하고 電話를 끊었다. 대단히 서운하셨던것 같아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러기에 工大 專任 敎授님들이 通告하기를 주저 하셨던것 같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同年 7月 14日 저녁에 元 博士님이 電話를 주셨는데 지난번 終講式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시기에 取消됐습니다 하였더니 내가 來日,모래(16日)에 미국에 가는데 來日(15日) 終講式을 할수 없겠는가 하는 말씀이었다. 이미 放學이 시작되어 다 헤어져서 안되겠습니다 라고 傳하고 언제 돌아오실 豫定이십니까 하였더니 8月 末頃될 것 이라고 하기에 그때 오셔서 電話를 주시지요 하고 電話機를 놓았다.

그리고 7年余後에 東京에서 뵈이고 이듬해 他界하셨으니 停年도 모르시고(안하시고) 한 平生 살다가신 恩師님! 그 어른은 弟子 앞에서 決코 남의 모함이나 短點이나 曷설을 하신적이 없었으니 진정 훌륭하신 스승님 이셨습니다. 부디 平安히 쉬십시오.

맺 음 말

끝까지 읽어주신 水工學徒 여러분에게 衷心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幸여나 훌륭하신 元老 水工學者 靜岩 元泰常 博士님의 삶의 발자취를 더듬음에 있어 누가 되지 않았는가 걱정되오며 많은 弟子분들과 더불어 다시 한번 故人의 冥福을 祈願하는 바입니다.